

현안분석1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ichoi@kipf.re.kr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 분석: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¹⁾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2025년 8월 발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5~2026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 소진 이후 적자의 지속 확대로 2065년 GDP 대비 ▲3.0%까지 수지가 악화될 전망이다.²⁾ 이는 보험료율은 2032년 법정 상한인 8% 도달 이후 동결되고 수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결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율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재정운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방식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는 건강보험료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가능한 수준의 지출 관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데, 가령 권정현(2025)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보다는 가격 상승이 전체 의료비 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 보완 등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문성웅 외(2024)는 기존 문헌 고찰 및 주요국의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는데,

1) 본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공동연구포럼(2025년 제4차)에서 발제한 내용을 「재정포럼」의 편집방향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고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신 공동연구포럼 참석자분들, 원내 토론을 통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분들, 서면으로 세심한 검토의견을 전달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및 편집위원분들, 본고에서 활용된 자료의 추출 및 제공을 위해 도움을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분께 저자는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고에 제시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며, 본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오류나 실수는 모두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2) 대한민국정부(2025. 8.), p. 242.

본 연구는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요인별 분해를
시도한다.

실제 자료에서 관찰되는 보험료 수입의 변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관찰되는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양상 및 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체 보험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들과 비정책적 요인들의 기여로 분해³⁾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수와 1인당 보험료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수와 노동시장 내 고용률 등 건강보험의 정책 변수로 간주하기 어려운 요인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반면, 1인당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부과 체계와 같은 정책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보험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은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 측면에서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비정책적 요인들의 보험료 수입 기여도 감소 추이가 목격된다면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필요성에 더해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기준 정비, 일용근로소득 등으로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건강보험료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추가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적인바, 국제 측면에서는 각 세목별 세입의 변동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안종석(2019)과 박지원(2025)은 (근로)소득세수 변동 요인을, 신상화(2024)와 권성준(2024)은 법인세수 변동 요인을, 박명호(2016)와 김효경(2025)은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을 각각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⁴⁾ 반면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요인에 집중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운데,⁵⁾ 본 연구는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를 위해 제시된 방법론(이정민·한종석, 2024)을 응용하여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요인별 분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⁶⁾ 문성웅 외(2024) 등 건강보험 재정 관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3) 본 연구는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각 요인의 회계적 기여도를 산출해 보고자 하는바, 보험료율 인상 등 정책적 요인의 변화가 노동시장 내 고용률 등 비정책적 요인의 변화에 미친 내생적 영향까지 엄밀히 식별하여 분해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을 밝혀둔다.

4) 한편 석병훈·유혜미(2019)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의 변동성을 과세 베이스 및 실효세율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5) 예외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2021)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보험료 요율 및 상한액·하한액 변화 등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에 집중하였던바, 정책적·비정책적 요인들의 변화를 모두 고려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이정민·한종석(2024)은 향후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를 위해 건강보험료 수입에 대한 요인별 분해식을 제시·활용하고 있는바, 본 연구는 동일한 분해식을 사용하되 최근 10년간 보험료 수입 및 그 변동에 대한 요인별 분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어지는 제II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보험료 부과 체계 등을 살펴본다. 이후 제III장과 제IV장에서 분석 방법 및 자료를 각각 소개하고, 제V장에서는 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요인별 분해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VI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가운데 향후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건강보험 수익은 보험료, 정부지원금,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보험료가 건강보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I 건강보험 운영 현황

1. 재정 현황⁷⁾

건강보험 수익은 보험료, 정부지원금,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보험료가 건강보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보험료는 2015년 44.3조원의 1.9배인 84.1조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수익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0.6%p 상승한 83.8%로 나타난다(〈표 1〉 참조). 이때 전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부담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기간 부과 체계 개편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직장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24년 기준 88.7%(74.6조원)에 이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수익 대비 74.3%에 달하는 규모로 사실상 직장가입자 부담 보험료가 건강보험 수익의 중추임을 말해주는바, 이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직장가입자 부담 보험료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⁸⁾ 한편 동기간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수익과 마찬가지로 비용 역시 2015~2024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해 왔는데, 이는 해당 기간 건강보험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의 증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보험급여비 규모는 96.5조원 수준으로 집계

7) 이하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 기초한 것으로, 현금 흐름 기준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e-나라지표,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 검색일자: 2026. 4. 5.)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해당 자료를 통해 직장가입자 부담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바,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 기초하여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파악·제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8)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과 달라 양자에 동일한 보험료 분해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직장가입자에 집중하는 데에는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밝혀둔다.

되는데, 이는 2015년 45.8조원 대비 110.8% 상승한 수치이다. 다만 해당 기간 당기순 이익 흑자를 기록한 해가 많아 처분후누적법정준비금이 증가되어온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그 규모는 29.7조원 수준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기준 시나리오상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는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단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한 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표 1 건강보험 재정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익(A)	53.3	56.5	58.8	62.7	69.2	75.1	81.7	91.0	96.4	100.4
보험료(C1)	44.3	47.6	50.4	53.9	59.1	63.1	69.5	76.8	82.1	84.1
직장	37.0	39.9	42.4	45.9	50.8	54.0	59.5	66.7	72.4	74.6
지역	7.4	7.6	8.0	8.0	8.4	9.1	10.0	10.1	9.7	9.5
정부지원금(C2)	7.1	7.1	6.8	7.1	7.8	9.2	9.6	10.5	11.0	12.2
국고지원금	5.6	5.2	4.9	5.2	6.0	7.3	7.6	8.7	9.1	10.3
담배부담금	1.5	1.9	1.9	1.9	1.8	1.9	1.9	1.8	1.8	1.9
기타	1.9	1.8	1.6	1.7	2.3	2.8	2.7	3.8	3.4	4.1
비용(B)	48.2	53.7	58.0	66.0	72.1	73.6	79.0	86.2	94.7	99.0
보험급여비(D)	45.8	51.0	54.9	63.2	69.0	71.2	76.7	83.5	92.3	96.5
관리운영비	0.6	0.7	0.7	0.8	0.9	0.9	0.9	0.9	0.9	1.0
기타	1.8	2.1	2.4	2.0	2.2	1.6	1.4	1.8	1.5	1.5
보험료 대 급여비 비율(D/(C1+C2))	89.0	93.3	96.0	103.6	103.1	98.4	97.0	95.7	99.2	100.2
총수지율(B/A)	90.4	95.2	98.6	105.2	104.2	98.0	96.6	94.7	98.3	98.6
당기순이익(A-B)	5.1	2.7	0.8	-3.3	-2.9	1.5	2.8	4.8	1.7	1.4
처분후누적법정준비금	17.0	20.1	20.8	20.6	17.8	17.4	20.2	23.9	28.0	29.7

주 결산 기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2. 보험료 부과 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과 체계는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무임승차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8년 7월의 1단계 개편과 2022년 9월의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된 바 있는데, 해당 개편들을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및 피부양자 요건 강화 등이 도모되었다. 구체적인 부과 체계 1단계·2단계 개편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재산공제의 도입 및

확대로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피부양자의 연소득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⁹⁾

표 2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내용

구분		1단계 개편(2018년 7월)	2단계 개편(2022년 9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별점수제	소득정률제
	소득최저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하(월 14,65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월 19,500원)
	소득최저보험료 감액	4년간 인상분 전액 감액	2년간 인상분 전액 감액, 그 후 2년간 50% 감액
	재산보험료	재산과표 500만~1,350만원 공제 (재산구간별 차등 공제)	재산과표 5,000만원 공제
	자동차보험료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잔존가치 4,000만원 이상 시 부과)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
직장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	3,4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상한(본인 부담)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재산 기준	재산과표 9억원 초과 시 탈락, 연소득 1,000만원 초과자로서 과표 5.4억~9.0억원 보유 시 탈락	
	형제·자매 인정 기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상이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인정 (재산과표 1.8억원 초과 시 탈락)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감액	4년간 보험료 30% 감액	4년간 보험료 단계적 감액(80%→60%→40%→20%)
공통	근로·연금소득 반영률	30%	50%

출처 문심명(2022), p. 2(일부 수정)

2026년 현재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편입 시 해당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¹⁰⁾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과 보험료율(2026년 기준 7.19%)의 곱으로 결정되는데,¹¹⁾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¹²⁾

한편 보수 외 소득(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해당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월액과 보험료율(2026년 기준 7.19%)의

9) 2단계 개편 이후에도 부과 체계 정비 작업이 계속되었는데,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전면 폐지되었다.

1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산정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부과·산정」(<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83&article.offset=0&articleLimit=12>, 검색일자: 2026. 3. 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11) 단, 과도한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해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한이 존재하는데, 2026년 기준 월 9,183,48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12)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로 받은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말하는데,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차목, 파목, 거목은 제외)은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를 위해 제안된 방식을 역으로 활용하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곱으로 결정된다.¹³⁾ 이때 보수 외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 공제 후 12로 나눈 값에 소득별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¹⁴⁾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의 경우 100%,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50%의 소득평가율이 각각 적용된다.¹⁵⁾

III 분석 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직장가입자의 수와 보험료율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의 변동은 해당 요인들의 변화 여부 및 정도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는바, 각각의 요인들이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보험료 수입 변동의 배경을 파악하거나 향후 보험료 수입 변동 양상을 예측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몇몇 핵심 요인들로 분해하는 작업을 시도하는바, 본 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과 그 변동은 여러 방식에 의해 분해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를 위해 제안된 방식을 역으로 활용하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를 위해 제안된 방식을 응용하여 보험료 수입 변동을 분해할 경우 향후 보험료 수입 변동 양상을 일정 수준 예측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간접적으로 식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정민·한종석(2024)을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을 인구수, 고용률, 취업자 대비 가입자 비율, 1인당 보수(소득), 보험료율 등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연도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의 수입 총액은 다음과 같이 기술·분해될 수 있다.

13)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의 경우에도 과도한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해 상한(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이 존재하는데, 2026년 기준 월 4,591,740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14) 소득별 소득평가율을 적용하기에 앞서,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 공제 후 12로 나눈 값을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15) 단,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시 합산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text{보수월액 보험료} = 15\text{세 이상 인구} \times \frac{\text{취업자 수}}{15\text{세 이상 인구}} \times \frac{\text{보수월액 납부자 수}}{\text{취업자 수}} \quad \text{식 (1)}$$

$$\times 1\text{인당 보수월액} \times \text{보험료율} \times 12$$

이때 $100 \times \left(\frac{\text{취업자 수}}{15\text{세 이상 인구}} \right)$ 는 고용률에 해당되며, 보수월액 납부자 수¹⁶⁾는 사실상 직장가입자 수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연도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의 수입 총액 역시 다음과 같이 식 (1)과 유사하게 기술·분해될 수 있다.

$$\text{소득월액 보험료} = \text{보수월액 납부자 수} \times \frac{\text{소득월액 납부자 수}}{\text{보수월액 납부자 수}} \quad \text{식 (2)}$$

$$\times 1\text{인당 소득월액} \times \text{보험료율} \times 12$$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의 연도별 변화는 각 요인들의 연도별 변화 여부 내지 정도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예컨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의 연도별 변화는 15세 이상 인구수, 노동시장 내 고용률, 취업자 수 대비 직장가입자 수의 비중, 1인당 평균 보수월액, 그리고 보험료율의 연도별 변화로 분해되어 이해될 수 있다.¹⁷⁾

한편 건강보험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은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 측면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15세 이상 인구수 및 노동시장 내 고용률 등은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므로 비정책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보험료율의 경우 건강보험 제도 자체라 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만일 이하의 분석을 통해 15세 이상 인구수 등 비정책적 요인(들)의 보험료 수입에 대한 기여 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면 (향후 건강보험 지출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할 여지가 높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끝으로 직장가입자는 성·연령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므로 자료 구득이 가능할 경우 성·연령별 세분화된 분석이 시도될 수 있음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의
연도별 변화는 각
요인들의 연도별
변화 여부 내지
정도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16) 본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보수월액 보험료 납부자 수”를 “보수월액 납부자 수”로 축약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아울러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수” 역시 “소득월액 납부자 수”로 축약하여 지칭한다.

17) 당연하게도 이상에서 열거된 요인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바, 가령 보험료율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노동 공급 또는 보험 가입과 관련한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노동시장 내 고용률 등 다른 요인들의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 간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식별·분리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나타난 요인별 변동이 보험료 수입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산정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하는바, 분석 결과 해석 시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의 한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활용하는 가운데 2015~2024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한다.

분석을 통해 2026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부과 체계 개편이 각 세부집단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우선 수행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하 “공단 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성·연령별 세분화된 분석을 추가로 수행해 보기로 한다.

IV 분석 자료

제Ⅲ장에서 소개한 방법을 적용하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공동으로 구축·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해당 통계연보로부터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납부 인원 및 규모,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인원 및 규모 등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데,¹⁸⁾ 이하 분석에서는 부과 체계 1단계·2단계 개편이 시행된 바 있는 2015~2024년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한다.¹⁹⁾ [그림 1]은 통계연보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석 기간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그 흐름이 정체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²⁰⁾ 아울러 직장가입자 보험료에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2024년 기준 2.5%)이나, 절대적인 규모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역시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연령별 세분화된 분석은 공단 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공단 제공자료로부터 성·연령·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납부 인원 및 규모,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인원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 연령이 5개 범주(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하 분석에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표 3> 및 <표 4>는 세부집단별 보수월액 보험료 납부 인원 및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석 기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18) 단, 보수월액 보험료는 산정보험료 기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부과보험료 기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보험료 자료는 보험료 “수입”보다는 보험료 “수익”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추후 분석 자료가 확보되어 보다 엄밀한 차원에서 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 참고로 해당 기간 2017년 및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보험료율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로부터 보험료율이 분석 기간 보험료 수입 변동에 음(-)의 기여를 하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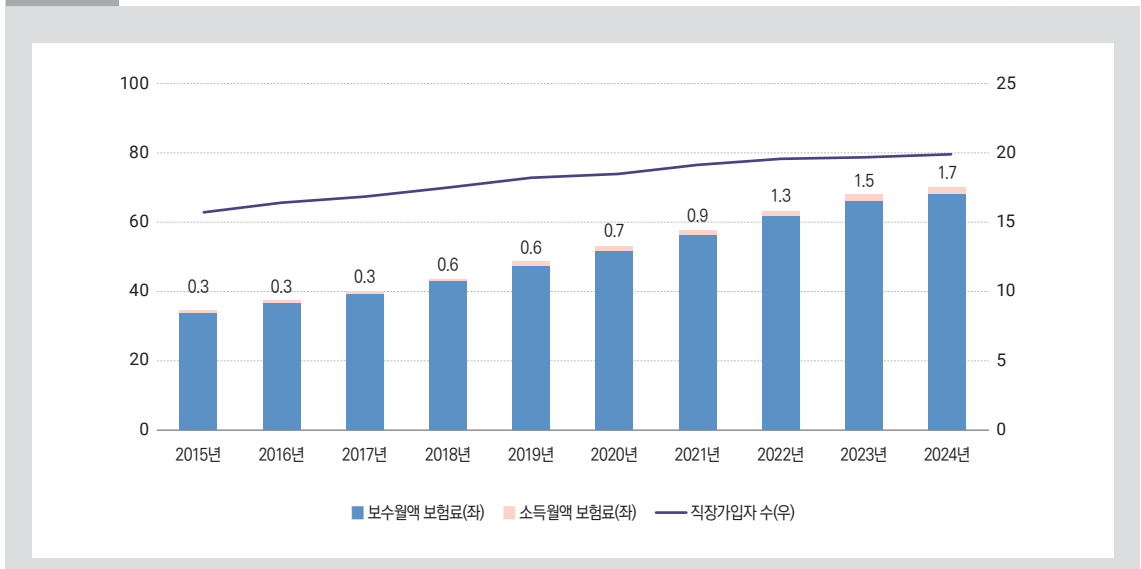
20)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는 2016년 438천명, 2020년 492천명, 2024년 648천명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나 최근 그 증가 폭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바, 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50세 이상 보수월액 보험료 납부 인원 및 규모가 증가하였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50세 미만 납부 인원은 2016년 11.0백만명에서 2024년 11.2백만명으로 2.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 4.8백만명에서 8.0백만명으로 6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 납부 인원 전체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30.4%에서 2024년 41.6%로 11.2%p 상승한 것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측면에서도 해당 기간 50세 이상의 경우 139.9%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56.4%의 증가율을 보인 50세 미만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동 기간 10.0%p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표 4> 참조).

끝으로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의 요인별 분해를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 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추출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로부터 성·연령·연도별 인구수, 고용률, 취업자 수 등의 통계를 확보하여 이하 분석에 활용하는바, 전수자료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공단 제공자료와의 정합성을 위해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 추정치를 산출하였음을 밝혀둔다.²¹⁾

그림 1 직장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추이

(단위: 조원, 백만명)



주 병기된 수치는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21) 참고로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공단 제공자료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재외국민이 제외되어 있어, 양 자료 간 재외국민의 규모만큼 불일치가 존재함을 밝혀둔다.

표 3 성·연령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납부 인원 추이

(단위: 백만명, %)

구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전체	15.8	16.9	18.1	19.0	19.3
	(100.0)	(100.0)	(100.0)	(100.0)	(100.0)
50세 미만	11.0	11.3	11.4	11.5	11.2
	(69.6)	(66.7)	(63.3)	(60.7)	(58.4)
50세 이상	4.8	5.6	6.6	7.4	8.0
	(30.4)	(33.3)	(36.7)	(39.3)	(41.6)
남성	9.5	10.0	10.6	11.0	11.0
	(60.3)	(59.2)	(58.5)	(58.0)	(57.3)
15~29세	1.2	1.3	1.4	1.3	1.2
	(7.9)	(7.8)	(7.5)	(7.1)	(6.4)
30~39세	2.6	2.6	2.5	2.5	2.5
	(16.4)	(15.2)	(13.8)	(12.9)	(12.8)
40~49세	2.6	2.7	2.8	2.8	2.7
	(16.8)	(15.8)	(15.2)	(14.7)	(13.8)
50~59세	2.1	2.3	2.5	2.6	2.7
	(13.1)	(13.3)	(13.6)	(13.8)	(13.9)
60세 이상	1.0	1.2	1.5	1.8	2.0
	(6.2)	(7.1)	(8.4)	(9.5)	(10.4)
여성	6.3	6.9	7.5	8.0	8.2
	(39.7)	(40.8)	(41.5)	(42.0)	(42.7)
15~29세	1.3	1.4	1.4	1.4	1.3
	(8.5)	(8.2)	(7.8)	(7.4)	(6.6)
30~39세	1.5	1.6	1.6	1.6	1.7
	(9.4)	(9.2)	(8.7)	(8.7)	(8.9)
40~49세	1.7	1.8	1.8	1.9	1.9
	(10.7)	(10.5)	(10.2)	(10.0)	(9.8)
50~59세	1.3	1.5	1.7	1.9	2.0
	(8.2)	(9.1)	(9.7)	(10.0)	(10.5)
60세 이상	0.5	0.6	0.9	1.1	1.3
	(3.0)	(3.8)	(5.0)	(5.9)	(6.9)

주 () 안은 비중(%)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표 4 성·연령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원, %)

구분	2016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전체	1,556.3	1,811.9	2,183.1	2,592.5	2,857.9
	(100.0)	(100.0)	(100.0)	(100.0)	(100.0)
50세 미만	1,049.3	1,171.8	1,345.5	1,542.5	1,641.3
	(67.4)	(64.7)	(61.6)	(59.5)	(57.4)
50세 이상	507.0	640.1	837.6	1,050.0	1,216.5
	(32.6)	(35.3)	(38.4)	(40.5)	(42.6)
남성	1,106.5	1,262.8	1,494.5	1,759.8	1,916.3
	(71.1)	(69.7)	(68.5)	(67.9)	(67.1)
15~29세	83.5	97.7	115.5	132.5	131.5
	(5.4)	(5.4)	(5.3)	(5.1)	(4.6)
30~39세	267.3	288.0	313.9	349.5	377.0
	(17.2)	(15.9)	(14.4)	(13.5)	(13.2)
40~49세	363.5	395.6	449.2	512.6	538.3
	(23.4)	(21.8)	(20.6)	(19.8)	(18.8)
50~59세	301.9	357.7	439.6	524.8	578.8
	(19.4)	(19.7)	(20.1)	(20.2)	(20.3)
60세 이상	90.3	123.7	176.2	240.3	290.7
	(5.8)	(6.8)	(8.1)	(9.3)	(10.2)
여성	449.8	549.1	688.6	832.8	941.5
	(28.9)	(30.3)	(31.5)	(32.1)	(32.9)
15~29세	81.8	93.9	111.4	126.7	124.7
	(5.3)	(5.2)	(5.1)	(4.9)	(4.4)
30~39세	120.0	138.3	161.7	191.7	217.1
	(7.7)	(7.6)	(7.4)	(7.4)	(7.6)
40~49세	133.2	158.3	193.6	229.5	252.7
	(8.6)	(8.7)	(8.9)	(8.9)	(8.8)
50~59세	90.3	121.1	162.2	201.8	238.2
	(5.8)	(6.7)	(7.4)	(7.8)	(8.3)
60세 이상	24.5	37.4	59.6	83.1	108.8
	(1.6)	(2.1)	(2.7)	(3.2)	(3.8)

주 1. 월 단위 가입자 부담금 기준
2. () 안은 비중(%)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V 분석 결과

1. 직장가입자 전체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식 (1)과 (2)를 활용하여 2015~2024년 직장가입자 전체의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수입을 연도별로 분해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2015년 직장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수입 34.9조원은 보수월액 보험료 34.7조원(99.3%)과 소득월액 보험료 0.3조원(0.7%)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 34.7조원은 15세 이상 인구 43.2백만명, 고용률 60.5%, 취업자 수 대비 보수월액 납부자 수 비율 58.2%, 1인당 보수월액 3,122.5천원, 보험료율 6.07%, 개월 수(12개월)로, 동시에 소득월액 보험료 0.3조원은 보수월액 납부자 수 15.2백만명, 보수월액 납부자 수 대비 소득월액 납부자 수 비율 0.3%, 1인당 소득월액 17,752.1천원, 보험료율 3.035%, 개월 수(12개월)로 분해될 수 있음을 해당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직장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수입 70.3조원은 보수월액 보험료 68.6조원(97.5%) 및 소득월액 보험료 1.7조원(2.5%)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연도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의 분해 결과 역시 2015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표 5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분해 결과

연도	보험료 합계 (조원)	보수월액 보험료 (조원)	15세 이상 (백만명)	고용률 (%)/100	보수월액 인원/ 취업자 수	1인당 보수월액 (천원)	보험료율 (%)/100	소득월액 보험료 (조원)	보수월액 인원 (백만명)	소득월액 인원/ 보수월액 인원	1인당 소득월액 (천원)	보험료율 (%)/100
2015	34.9	34.7	43.2	0.61	0.58	3,122.5	0.0607	0.25	15.2	0.003	17,752.1	0.03035
2016	37.6	37.4	43.6	0.61	0.60	3,217.9	0.0612	0.28	15.8	0.003	17,676.6	0.03060
2017	40.1	39.8	43.9	0.61	0.61	3,325.9	0.0612	0.29	16.3	0.003	17,590.1	0.03060
2018	44.1	43.5	44.2	0.61	0.63	3,434.9	0.0624	0.60	16.9	0.011	5,989.1	0.04680
2019	48.9	48.3	44.5	0.61	0.65	3,550.7	0.0646	0.65	17.5	0.011	4,288.5	0.06460
2020	53.1	52.4	44.8	0.60	0.67	3,620.3	0.0667	0.73	18.1	0.013	3,956.0	0.06670
2021	57.3	56.4	45.1	0.60	0.68	3,704.0	0.0686	0.90	18.5	0.014	4,142.7	0.06860
2022	63.6	62.2	45.3	0.62	0.67	3,913.1	0.0699	1.35	19.0	0.031	2,734.9	0.06990
2023	68.2	66.7	45.4	0.63	0.68	4,082.2	0.0709	1.48	19.2	0.035	2,625.8	0.07090
2024	70.3	68.6	45.6	0.63	0.67	4,184.5	0.0709	1.73	19.3	0.042	2,531.7	0.07090

주 2018년 소득월액 보험료율은 3.12%(상반기)와 6.24%(하반기)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됨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인데,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전년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관심 요인별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직장가입자 전체의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는 2015년 34.7조원 대비 33.9조원(97.8%) 증가한 68.6조원으로 집계되는데, 해당 기간 보수월액 보험료 증가는 동 기간 1,062.0천원(34.0%) 증가한 1인당 보수월액, 1.02%p(16.8%) 증가한 보험료율, 9.2%p(15.8%) 증가한 취업자 수 대비 보수월액 납부자 수의 비율 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해당 기간 15세 이상 인구수 및 고용률의 변화가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가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간단한 계산을 통해 만일 2024년 당시 1인당 보수월액이 2015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보수월액 보험료는 실제보다 17.4조원 적은 51.2조원에 그쳤을 것인 반면, 고용률 변화가 없었더라도 보수월액 보험료는 66.2조원에 달했을 것임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표 6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요인별 전년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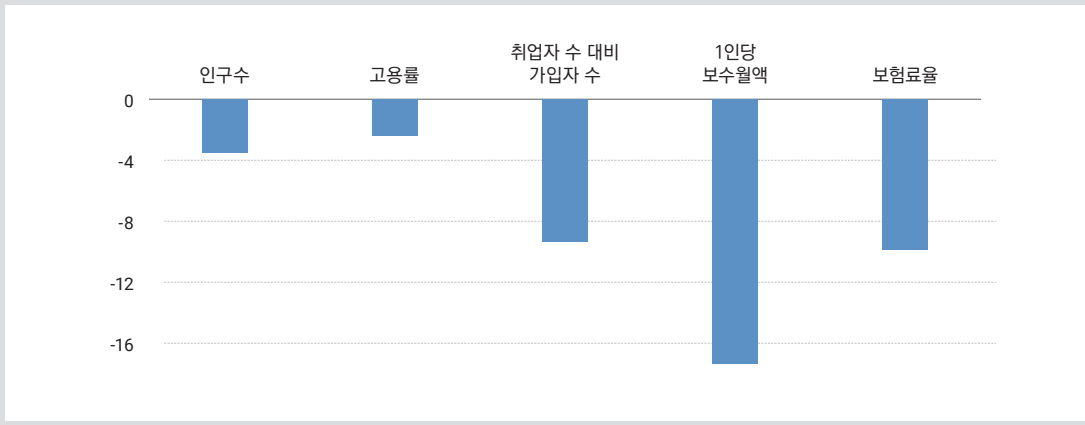
연도	보험료 합계 (조원)	보수월액 보험료 (조원)	15세 이상 (백만명)	고용률 (%)	보수월액 인원/ 취업자 수	1인당 보수월액 (천원)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조원)	보수월액 인원 (백만명)	소득월액 인원/ 보수월액 인원	1인당 소득월액 (천원)	보험료율 (%)
2016	2.71 (7.75)	2.68 (7.72)	0.37 (0.85)	0.02 (0.03)	1.61 (2.76)	95.4 (3.05)	0.05 (0.82)	0.03 (11.75)	0.56 (3.67)	0.02 (7.37)	▲75.5 (▲0.43)	0.03 (0.82)
2017	2.48 (6.60)	2.47 (6.62)	0.33 (0.75)	0.27 (0.45)	1.16 (1.94)	108.0 (3.36)	0.00 (0.00)	0.01 (3.36)	0.50 (3.16)	0.00 (0.69)	▲86.5 (▲0.49)	0.00 (0.00)
2018	3.97 (9.90)	3.66 (9.19)	0.25 (0.57)	▲0.13 (▲0.21)	2.02 (3.32)	109.0 (3.28)	0.12 (1.96)	0.31 (106.80)	0.60 (3.69)	0.79 (282.99)	▲11,601.0 (▲65.95)	1.62 (52.94)
2019	4.84 (10.99)	4.80 (11.04)	0.32 (0.73)	0.24 (0.39)	1.65 (2.61)	115.8 (3.37)	0.22 (3.53)	0.04 (7.09)	0.64 (3.76)	0.05 (4.42)	▲1,700.6 (▲28.40)	1.78 (38.03)
2020	4.19 (8.56)	4.11 (8.51)	0.28 (0.63)	▲0.87 (▲1.43)	2.53 (3.91)	69.7 (1.96)	0.21 (3.25)	0.08 (12.36)	0.54 (3.07)	0.16 (14.45)	▲332.5 (▲7.75)	0.21 (3.25)
2021	4.21 (7.93)	4.04 (7.70)	0.30 (0.66)	0.43 (0.71)	0.65 (0.97)	83.6 (2.31)	0.19 (2.85)	0.18 (24.08)	0.43 (2.36)	0.16 (12.56)	186.7 (4.72)	0.19 (2.85)
2022	6.24 (10.88)	5.79 (10.26)	0.18 (0.40)	1.56 (2.58)	▲0.37 (▲0.55)	209.1 (5.65)	0.13 (1.90)	0.45 (49.34)	0.45 (2.43)	1.67 (116.75)	▲1,407.8 (▲33.98)	0.13 (1.90)
2023	4.61 (7.25)	4.48 (7.19)	0.15 (0.32)	0.52 (0.84)	0.09 (0.14)	169.1 (4.32)	0.10 (1.43)	0.13 (9.83)	0.25 (1.30)	0.35 (11.33)	▲109.1 (▲3.99)	0.10 (1.43)
2024	2.15 (3.15)	1.89 (2.84)	0.16 (0.36)	0.13 (0.20)	▲0.16 (▲0.24)	102.3 (2.51)	0.00 (0.00)	0.25 (17.11)	0.06 (0.32)	0.73 (21.07)	▲94.1 (▲3.58)	0.00 (0.00)
2015~2024	35.39 (101.34)	33.91 (97.81)	2.33 (5.39)	2.17 (3.58)	9.18 (15.76)	1,062.0 (34.01)	1.02 (16.80)	1.48 (585.11)	4.02 (26.37)	3.92 (1,527.32)	▲15,220.4 (▲85.74)	4.06 (133.61)

주 1. "보수월액 인원/취업자 수" 및 "소득월액 인원/보수월액 인원"의 경우 증감량 계산 후 100을 곱한 수치임
2. () 안의 증감률은 백분율(%)로 표현됨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2 가상의 시나리오상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단위: 조원)



주 고려되는 요인의 값이 2015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가정에 계산된 가상의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에서 실제 보험료 수입(68.6조원)을 차감한 결과임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자연로그 차분 방식²²⁾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각 요인별로 분해하여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해당 분석 결과는 <표 7> 및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분석 기간 15세 이상 인구수가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감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속 감소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6년 당시 전년 대비 보수월액 보험료 증가의 11.4%가 15세 이상 인구수 증가로 설명되었으나 2023년 현재 그 비중은 4.7%로 낮아진 상태이다.²³⁾ 나아가 고용률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으로서 경기 상황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령 2020년 당시 고용률은 보험료 수입 증가에 음(-)의 기여(▲17.6%)를 하는 가운데 다른 요인들에 의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승을 일부 상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1인당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기간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가를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재확인된다.

22) 자연로그 차분 방식으로 증감률을 계산할 경우 실제 증감률 대비 오차가 발생하게 되지만, 보험료 증감률을 각 요인별 증감률 내지 기여도로 정확히 분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3) 단, 2024년 전년 대비 보수월액 보험료 증가의 12.8%가 15세 이상 인구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4년 보험료 증가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매우 낮음을 감안하여 해당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7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요인별 전년 대비 증감률(자연로그 차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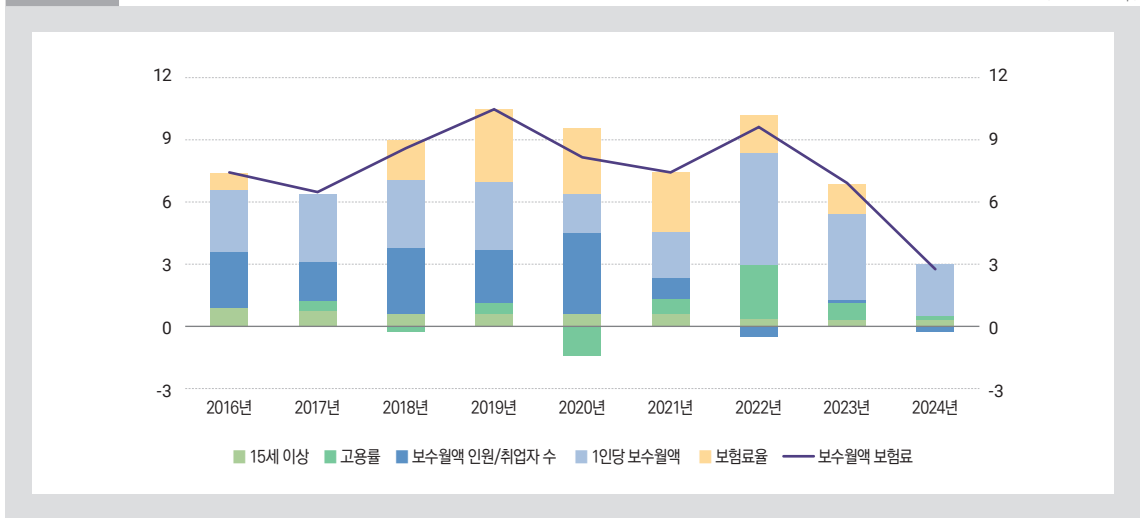
연도	보험료 합계	보수월액 보험료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	보수월액 인원/ 취업자 수	1인당 보수월액	보험료율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인원	소득월액 인원/ 보수월액 인원	1인당 소득월액	보험료율
2016	7.46	7.43 (100.0)	0.85 (11.4)	0.03 (0.4)	2.73 (36.7)	3.01 (40.5)	0.82 (11.0)	11.11 (100.0)	3.61 (32.4)	7.11 (64.0)	▲0.43 (▲3.8)	0.82 (7.4)
2017	6.39	6.41 (100.0)	0.74 (11.6)	0.45 (7.0)	1.92 (30.0)	3.30 (51.5)	0.00 (0.0)	3.31 (100.0)	3.11 (94.1)	0.69 (20.7)	▲0.49 (▲14.8)	0.00 (0.0)
2018	9.44	8.79 (100.0)	0.57 (6.5)	▲0.21 (▲2.4)	3.26 (37.1)	3.23 (36.7)	1.94 (22.1)	72.66 (100.0)	3.63 (5.0)	134.29 (184.8)	▲107.74 (▲148.3)	42.49 (58.5)
2019	10.42	10.47 (100.0)	0.73 (6.9)	0.39 (3.7)	2.58 (24.6)	3.31 (31.7)	3.46 (33.1)	6.85 (100.0)	3.69 (53.9)	4.32 (63.1)	▲33.40 (▲487.7)	32.23 (470.6)
2020	8.21	8.17 (100.0)	0.63 (7.7)	▲1.44 (▲17.6)	3.84 (47.0)	1.94 (23.8)	3.20 (39.2)	11.65 (100.0)	3.02 (26.0)	13.50 (115.8)	▲8.07 (▲69.2)	3.20 (27.4)
2021	7.63	7.42 (100.0)	0.66 (8.8)	0.71 (9.5)	0.97 (13.0)	2.28 (30.8)	2.81 (37.9)	21.58 (100.0)	2.33 (10.8)	11.83 (54.8)	4.61 (21.4)	2.81 (13.0)
2022	10.32	9.77 (100.0)	0.40 (4.1)	2.55 (26.1)	▲0.55 (▲5.6)	5.49 (56.2)	1.88 (19.2)	40.11 (100.0)	2.40 (6.0)	77.36 (192.9)	▲41.53 (▲103.5)	1.88 (4.7)
2023	7.00	6.95 (100.0)	0.32 (4.7)	0.83 (12.0)	0.14 (2.0)	4.23 (60.9)	1.42 (20.4)	9.38 (100.0)	1.29 (13.8)	10.73 (114.5)	▲4.07 (▲43.4)	1.42 (15.1)
2024	3.10	2.80 (100.0)	0.36 (12.8)	0.20 (7.3)	▲0.24 (▲8.6)	2.47 (88.5)	0.00 (0.0)	15.80 (100.0)	0.32 (2.0)	19.12 (121.1)	▲3.65 (▲23.1)	0.00 (0.0)
2015~2024	69.98	68.21 (100.0)	5.25 (7.7)	3.51 (5.2)	14.64 (21.5)	29.28 (42.9)	15.53 (22.8)	192.44 (100.0)	23.40 (12.2)	278.95 (145.0)	▲194.76 (▲101.2)	84.85 (44.1)

주 () 안은 보수월액·소득월액·보험료 증감률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도(%)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증감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

(단위: %, %p)



주 증감률은 자연로그 차분 방식으로 계산됨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소득월액보험료
수입 변동의
요인별 분해 시
그간 부과 체계
개편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표 7〉에서 추가로 관찰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소득월액 보험료 증감률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서 그간 부과 체계 개편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2018년 당시 (자연로그 차분 방식으로 계산된) 전년 대비 소득월액 보험료의 증가율은 72.7%인데, 이는 보수월액 납부자 수 대비 소득월액 납부자 수의 비율 증가(134.3%)와 1인당 소득월액 감소(▲107.7%)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²⁴⁾ 또한 2022년 당시 전년 대비 40.1% 증가한 소득월액 보험료의 경우에도 보수월액 납부자 수 대비 소득월액 납부자 수의 비율 증가(77.4%)와 1인당 소득월액 감소(▲41.5%) 등으로 분해되어 설명될 수 있는데, 이 역시 2022년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이 기존 보수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자에서 연 2,000만원 초과자로 확대된 변화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²⁵⁾

끝으로 이상에서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를 위해 제안된 방식을 응용하여 보험료 수입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²⁶⁾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정민·한종석(2024)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분석 기간의 보험료 수입을 추계한 자료가 없어 해당 작업을 엄밀히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적어도 인구수의 경우 보험료 수입의 과대 추정을, 고용률의 경우 과소 추정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목격된다. 가령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상 2020년 15세 이상 인구 추계치는 실제값 대비 1.4% 높은 45,400천명(중위 기준)이었는데, 이는 인구수 외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정치는 모두 정확했었다는 가정하에 보험료 수입 전망치가 실제보다 1.4% 높게 추정될 여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상 2023년 고용률은 2020년 대비 0.6%p 높은 60.7%로 전망되었는데, 동 기간 실제 고용률은 2.5%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역시 고용률 외 다른 요인들의 추정치는 모두 정확했었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수입 전망치의 과소 추정 가능성을 보여준다.²⁷⁾ 따라서 향후 보험료 수입 추계의

24) 실제로 2018년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이 보수 외 소득 연 7,200만원 초과자에서 연 3,400만원 초과자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개편을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자 수는 증가하고 부과소득 평균은 낮아진 것이 분석 결과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5) 당연히 소득월액 보험료 증감에는 부과 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또는 부동산시장 등의 여건 변화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해당 요인들의 기여를 엄밀히 분리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분석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6) 보건의료 지출 추계 측면에서는 김중면·윤성주(2020) 등에 의해 유사한 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

27) 참고로 이정민·한종석(2024)의 경우 가용한 자료로부터 고용률 전망치를 확보하는 대신 회귀 분석을 통해 성·연령별 고용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추계 과정에서 고용률은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것으로 가정되는바, 실제 고용률 상승 시 보험료 수입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정밀도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수 변화 추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추가하고, 보다 세밀한 방식으로 추정된 고용률 전망치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0세 미만(이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분석 기간
인구수 변화가
보험료 수입의
감소(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성·연령별 이질성 분석

이상에서 전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는데,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여부 및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직장가입자 내 세부집단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 자체와 그 요인별 분해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공단 제공자료를 활용하여 성·연령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제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가입자 보험료에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분석 기간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하여 이하 세부집단별 분석 시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에 집중하기로 한다.

성·연령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증감률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는데, 50세 미만(이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분석 기간 인구수 변화가 보험료 감소(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5~29세 남성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대비 2024년 보험료 수입이 52.2% 상승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해당 기간 고용률(10.1%), 취업자 수 대비 직장가입자 수 비율(5.7%), 1인당 보수월액(34.5%), 보험료율(15.5%) 증가로 인한 보험료 수입 상승분을 인구수(▲13.7%) 감소가 일부 상쇄시킴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60세 이상 남성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대비 2024년 보험료가 13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보험료 수입 증가는 동 기간 45.9% 상승한 인구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고용률은 분석 기간 대체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남성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에 따라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2015년 대비 2024년 60세 이상 여성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승률(170.6%)의 14.7%인 25.0%p는 동 기간 고용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30대 남성의 경우 2022년을 제외한 모든 분석 기간 고용률이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의 감소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취업자 수 대비 직장가입자 수의 비율이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에 기여한 정도 역시 성·연령에 따라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30세 미만 직장가입자의 최근 보험료

표 8

남성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요인별 전년 대비 증감률(자연로그 차분)

(단위: %, %p)

연령	연도	보수월액 보험료	인구수	고용률	직장가입자 수/ 취업자 수	1인당 보수월액	보험료율
15~29세	2016	6.73	▲0.04	1.33	1.95	2.66	0.82
	2017	5.79	▲0.79	0.21	2.61	3.77	0.00
	2018	9.92	▲1.59	1.53	3.93	4.11	1.94
	2019	10.91	▲0.70	3.88	▲0.40	4.67	3.46
	2020	5.86	▲1.74	▲3.34	5.02	2.71	3.20
	2021	6.50	▲1.49	2.47	▲0.90	3.61	2.81
	2022	7.19	▲2.44	5.23	▲3.89	6.42	1.88
	2023	2.44	▲1.79	▲0.45	▲0.82	4.08	1.42
	2024	▲3.17	▲3.07	▲0.78	▲1.80	2.48	0.00
	2015~2024	52.17	▲13.66	10.08	5.70	34.51	15.53
30~39세	2016	3.37	▲1.17	▲0.80	1.32	3.19	0.82
	2017	2.07	▲1.18	▲0.02	▲0.07	3.34	0.00
	2018	5.40	▲1.35	▲0.56	2.12	3.24	1.94
	2019	5.56	▲1.08	▲0.69	0.91	2.96	3.46
	2020	3.06	▲1.66	▲1.03	0.84	1.71	3.20
	2021	3.74	▲1.77	▲0.12	0.53	2.28	2.81
	2022	6.99	▲1.74	1.24	0.10	5.51	1.88
	2023	5.25	▲0.92	▲0.27	1.50	3.53	1.42
	2024	2.33	0.76	▲1.01	0.76	1.82	0.00
	2015~2024	37.77	▲10.11	▲3.24	8.00	27.58	15.53
40~49세	2016	4.91	▲1.23	0.29	2.33	2.70	0.82
	2017	3.87	▲0.81	0.11	1.68	2.88	0.00
	2018	4.58	▲1.05	▲0.64	1.76	2.57	1.94
	2019	7.28	▲1.44	▲0.93	4.03	2.15	3.46
	2020	5.43	▲0.67	▲1.36	3.12	1.14	3.20
	2021	4.98	▲0.72	0.29	0.76	1.84	2.81
	2022	8.23	▲1.06	0.98	0.70	5.73	1.88
	2023	4.88	▲1.49	▲0.28	0.55	4.68	1.42
	2024	0.01	▲1.67	▲0.01	▲1.16	2.84	0.00
	2015~2024	44.17	▲10.14	▲1.54	13.78	26.53	15.53
50~59세	2016	8.75	1.39	▲0.01	3.24	3.32	0.82
	2017	7.38	1.15	0.88	1.51	3.84	0.00
	2018	9.60	0.74	▲0.90	4.91	2.91	1.94
	2019	11.46	1.20	▲0.93	4.94	2.78	3.46
	2020	9.14	0.33	▲0.65	4.25	2.02	3.20
	2021	7.56	0.19	0.44	2.60	1.53	2.81
	2022	10.16	0.37	1.70	0.82	5.39	1.88
	2023	7.47	0.07	0.20	1.64	4.14	1.42
	2024	2.32	0.74	▲0.32	▲0.22	2.12	0.00
	2015~2024	73.85	6.17	0.40	23.70	28.05	15.53
60세 이상	2016	15.36	5.33	0.29	4.80	4.12	0.82
	2017	15.06	5.48	0.35	5.29	3.94	0.00
	2018	16.40	5.63	0.36	3.96	4.51	1.94
	2019	18.54	5.47	1.20	4.35	4.06	3.46
	2020	16.82	5.76	1.19	4.81	1.86	3.20
	2021	14.01	5.71	1.09	1.21	3.20	2.81
	2022	17.02	4.62	3.87	1.00	5.66	1.88
	2023	11.84	4.21	0.54	1.09	4.58	1.42
	2024	7.18	3.67	▲1.07	1.85	2.72	0.00
	2015~2024	132.21	45.86	7.83	28.35	34.64	15.5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표 9

여성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수입 요인별 전년 대비 증감률(자연로그 차분)

(단위: %, %p)

연령	연도	보수월액 보험료	인구수	고용률	직장가입자 수/ 취업자 수	1인당 보수월액	보험료율
15~29세	2016	6.44	▲0.32	1.26	1.64	3.05	0.82
	2017	4.72	▲0.94	1.43	0.67	3.56	0.00
	2018	9.07	▲1.30	1.20	2.63	4.59	1.94
	2019	9.77	▲1.23	0.29	1.98	5.26	3.46
	2020	7.31	▲1.60	▲2.79	5.24	3.26	3.20
	2021	6.94	▲1.70	6.53	▲4.17	3.47	2.81
	2022	5.94	▲2.24	5.48	▲4.91	5.73	1.88
	2023	1.27	▲2.39	▲0.27	▲1.56	4.07	1.42
	2024	▲2.91	▲2.69	▲1.00	▲2.04	2.82	0.00
	2015~2024	48.54	▲14.41	12.15	▲0.53	35.80	15.53
30~39세	2016	5.84	▲1.67	2.28	0.85	3.56	0.82
	2017	5.20	▲1.53	2.14	1.08	3.52	0.00
	2018	9.02	▲1.81	2.04	2.90	3.95	1.94
	2019	9.05	▲1.81	2.18	1.10	4.11	3.46
	2020	6.60	▲2.43	▲1.18	3.84	3.17	3.20
	2021	7.95	▲2.28	0.06	4.53	2.83	2.81
	2022	9.05	▲1.91	4.89	▲1.29	5.48	1.88
	2023	7.32	▲1.20	5.47	▲2.21	3.83	1.42
	2024	5.11	▲0.34	4.70	▲1.92	2.67	0.00
	2015~2024	65.14	▲14.98	22.58	8.89	33.12	15.53
40~49세	2016	10.44	▲0.79	0.08	5.23	5.10	0.82
	2017	8.27	▲1.04	0.25	3.86	5.20	0.00
	2018	8.99	▲1.41	▲0.40	3.24	5.62	1.94
	2019	11.30	▲1.84	▲0.75	4.92	5.50	3.46
	2020	8.88	▲0.96	▲2.13	5.00	3.76	3.20
	2021	7.52	▲0.99	0.22	1.72	3.77	2.81
	2022	9.45	▲0.88	1.11	1.35	5.99	1.88
	2023	6.67	▲1.55	2.05	▲0.37	5.12	1.42
	2024	2.99	▲2.12	1.34	▲0.10	3.87	0.00
	2015~2024	74.51	▲11.58	1.77	24.85	43.94	15.53
50~59세	2016	14.03	1.46	▲0.16	7.59	4.32	0.82
	2017	13.50	1.11	1.90	5.51	4.97	0.00
	2018	15.88	1.00	0.88	6.82	5.23	1.94
	2019	16.38	1.13	2.10	4.13	5.55	3.46
	2020	12.84	▲0.05	▲2.74	8.66	3.77	3.20
	2021	10.51	▲0.26	1.81	3.02	3.14	2.81
	2022	11.30	0.38	3.95	▲0.45	5.55	1.88
	2023	10.38	0.19	1.51	2.22	5.04	1.42
	2024	6.22	0.70	▲0.32	1.91	3.93	0.00
	2015~2024	111.03	5.65	8.94	39.41	41.49	15.53
60세 이상	2016	21.41	4.48	1.91	9.74	4.46	0.82
	2017	20.06	4.53	1.93	9.68	3.91	0.00
	2018	22.45	4.61	0.38	10.17	5.35	1.94
	2019	24.88	4.63	5.94	6.32	4.53	3.46
	2020	21.56	5.13	3.53	8.47	1.23	3.20
	2021	15.46	4.99	0.66	4.48	2.52	2.81
	2022	17.78	4.03	3.36	3.31	5.20	1.88
	2023	15.36	3.42	4.38	0.79	5.34	1.42
	2024	11.65	3.19	2.95	2.48	3.03	0.00
	2015~2024	170.60	39.01	25.04	55.45	35.56	15.5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분석 기간 보수월액
보험료 증가는
1인당 보수월액,
보험료율,
취업자 수 대비
보수월액 납부자
수의 비율 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수입에는 음(-)의 영향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료 수입에는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15~29세 남성 및 여성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1~2024년 해당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4.9~▲0.8%)하여 보험료 수입 증감에 음(-)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60세 이상 남성 및 여성 직장가입자의 경우 동 기간 해당 비율의 상승(0.8~4.5%)이 보험료 수입 상승에 소폭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1인당 보수월액의 경우 보험료율과 함께 분석 기간 모든 집단에서의 보험료 수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그 정도는 세부집단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관찰된다. 가령 40대 여성 직장가입자의 2024년 1인당 보수월액은 2015년 대비 43.9% 상승하여 해당 기간 보험료 수입 증가를 주도한 반면, 40대 남성 직장가입자의 1인당 보수월액 상승률은 26.5%에 그쳐 상대적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에 기여한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표 8> 및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VI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본 연구는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을 정책적 요인들과 비정책적 요인들의 기여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등을 활용한 분석 결과, (명목) 보수월액 보험료 증가에 인구수가 기여하는 정도는 감소 중인 것으로, 고용률의 경우 그 기여 여부 및 정도가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 기간 보수월액 보험료 증가는 1인당 보수월액, 보험료율, 취업자 수 대비 보수월액 납부자 수의 비율 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부과 체계 1단계·2단계 개편이 진행되었던 분석 기간 소득월액 보험료 역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수월액 납부자 수 대비 소득월액 납부자 수의 비율 증가 및 1인당 소득월액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상·연령별 모든 세부집단에서 분석 기간 보수월액 보험료의 증가가 관찰되는데, 그 증가 요인은 고려되는 각 집단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적·비정책적 요인들이 최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향후 인구수 및 고용률 등의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만 인구수나 고용률 등의 지표는 건강보험 주무 부처나 공단의 자체적인 정책 수단만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요소들이나, 해당 요인들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건강보험 운영 주체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비정책적 요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가운데 취업자 수 대비 직장가입자 수의 비율, (1인당)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규모, 보험료율 수준 등 정책적 요인들의 관리 및 운영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기준 정비, 일용근로소득 등으로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보수 외 소득월액 관련 공제액 및 소득평가율 조정 등을 통해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료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가입자의 부담 능력, 지출 측면에서의 효율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현재 8%로 규정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²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등은 향후 보험료 수입 증대만으로 건강보험 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의한 국고지원금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제2항에 의한 담배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모두 2027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된 한시 규정이다. 따라서 일몰 도래 또는 준비금 소진 전 충분한 사회적·정책적 논의를 통해 해당 정부지원금의 향후 운영방식(일몰 연장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논의 과정에서 현재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6%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지원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²⁹⁾ 이상의 논의들은 특정 재원의 확대를 전제로 하기보다 재정 여건 및 제도 취지, 건강보험의 자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틀 안에서 신중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³⁰⁾


끝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출 측면에서의 효율화 역시 적극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해 둔다. 인구구조 변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향후 보험급여비 증가 추이를 억제하기는 쉽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29) 담배부담금의 경우 지원율이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실제 지원율이 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임슬기, 2023), 해당 구조적 요인의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30) 최근 임태준 한중석(2026)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확대가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관심 있는 독자들은 참고하길 바란다.

않은 상황인데,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지출 평가 체계를 공식화(권정현, 2025)하는 등의 효율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정 당국과 주무 부처가 중심이 되는 공동위원회 등 프랑스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전병목·김평식, 2023)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권성준, 「최근 법인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 2024(미발표 원고)
- 권정현,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KDI FOCUS』, 141, 2025, pp. 1~10
- 김종면·윤성주, 『보건의료 중장기 재정의 현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김효경,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나보포커스』, 121, 2025, pp. 1~4
-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5. 8.
- 문성웅·이수연·송지은·주시연·이상화·김정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24
- 문심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2031, 2022, pp. 1~4
- 박명호, 「부가가치세 세 부담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235, 2016, pp. 6~22
- 박지원,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나보포커스』, 105, 2025, pp. 1~4
- 석병훈·유혜미, 「외환위기 이후 세수변동성 요인 분석 - 3대 세목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48(1), 2019, pp. 1~42
- 신상화, 「법인세수 변동 요인과 시사점」, 『경영경제연구』, 46(1), 2024, pp. 191~211
- 안종석, 『소득세 수입 변동 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이정민·한종석, 『건강보험 수입 추계 모형 고도화』, 국회예산정책처, 2024
- 임슬기,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3
- 임태준·한종석,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의 경제 및 후생 효과」, 『예산정책연구』, 15(1), 2026, pp. 67~101
- 전병목·김평식,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6. 12. 8.
- 한국경영자총협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2021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 11.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부과/산정」,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83&article.offset=0&articleLimit=12>, 검색일자: 2026. 3. 1.

e-나라지표,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763, 검색일자: 2026.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https://www.law.go.kr/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공개청구 제공자료,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